

# 조선간 明文選本 『皇明正嘉八才子文抄』 연구\*

– 선집기준과 간행시기를 중심으로 –

김 정 숙 \*\*

- 
- |                      |                      |
|----------------------|----------------------|
| 1. 들어가며              | 3. 『皇明正嘉八才子文抄』의 간행시기 |
| 2. 『皇明正嘉八才子文抄』의 선집기준 | 4. 나오며               |
- 

**초록:** 『皇明正嘉八才子文抄』는 조선에서 간행된 명대 산문선집이다. ‘八才子’는 16세기 명대 중엽 正德、嘉靖연간에 활약했던 문인 여덟 사람을 가리킨다. 선행연구는 여전히 서지학적 검토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본 문선집이 제공하는 자료적 한계 즉 누가 언제 선집하고 간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편자와 간행 시기 관련 문제는 무엇보다 조선 독자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의미’와 이 선집본이 조선 문학사에서 자리매김하는 ‘좌표’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대적인 선결과제이다.

본고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위해 선집기준과 간행시기를 중심 주제로 기초 작업을 한 것이다. 우선, 선집본의 구성과 내용면에서 접근하여 편자의 선집기준을 검토했다. 편자의 문학적 취향、작가군의 선별범위, 문학비평의 준거, 이상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 이 책의 편자는 서정경과 황성중을 기점으로 육조文風의 작가를 하나로 묶은 것이며, 육조문학의 문채미와 진솔한 감정에 대한 문학적 취향을 왕세정 『예원치언』의 권위를 차용하여 드러내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필자는 선행연구가 집중한 ‘판형식’과는 차별적으로 텍스트 자체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책의 간행시기 관련 논의를 진행시켰다. 편자가 「씨명사적」과 본문의 文評에서 인용한 「吳中往哲像贊」이 왕세정 만년 문집인 『弇州續稿』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이 문집의 중국간행과

---

\*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조선 유입시기가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간행연대를 추정할 만한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弇州續稿』를 선집에 활용한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편찬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17세기 중반 이후일 가능성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핵심어 : 황명정가팔재자문초, 선집기준, 간행시기, 왕세정, 예원치언, 업주속고, 17세기

## 1. 들어가며

『皇明正嘉八才子文抄』 1册은 중국 明代中葉 여덟 문인의 散文 총 30편을 가려 모은 문선집으로 조선에서 편집하고 중앙에서 간행하였다.<sup>1)</sup>奎章閣에서 제작한 도서목록 또한 “한국에서 간행된 것”이라는 원칙하에 이 선집을 ‘韓國本’으로 분류하

1) 『황명정가팔재자문초』가 조선의 금속활자로 인출된 점으로 볼 때, 이 책의 간행지가 ‘조선’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編者의 국적까지도 과연 ‘조선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여전히 많은 확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편자를 ‘조선인’으로 상정한 것은, 몇 가지 소극적 근거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正嘉八才子’라는 명칭이 명대중엽에 운위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嘉靖八才子’라는 칭호가 있었으나, 그들은 당순지, 왕신중 등으로 ‘정가팔재자’의 구성원과 같지 않다. 그리고, Kanseki DB에 의하면 정말 卜世昌이 편찬한 『皇明八才子文選』이 검색되는데, 이 또한 이몽양과 이반룡, 왕세정 등 진한고문 계열의 작가를 수록한 것으로 『황명정가팔재자문초』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둘째, ‘皇明’은 명나라에 대한 존칭으로, 이를 서명으로 사용할 만한 편자는 명나라 자국인이거나 『皇明二大家文抄』와 같이 明의 문명을 존중했던 조선인일 것이며 청나라 사람일리는 없다. 그런데 『황명정가팔재자문초』는 17세기 중국측의 서목이나 조선쪽의 수입서적 리스트에서 모두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셋째, ‘정가팔재자’ 구성원의 상당수가 ‘吳中’ 출신인데, 조선의 문인은 오중지역의 출판물에 일찌감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가령, 윤근수의 문집 『月汀集』을 보면, 그가 명대중엽 오중사람 顧元慶이 출판한 총서류인 『顧氏明朝四十家小說』을 열독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주로 오중지역에서 필사본으로 유전되는 1책 규모의 서적들을 간인하여 총서로 묶은 것으로, 작가와 수록내용 모두가 오중지역과 밀접하다. 특히, 축윤명의 『金石契』, 양순길의 『吳中往哲記』, 서정경의 『新倩籍』, 염수경의 『吳郡二科志』 등은 모두 吳中의 人物志에 속하는 글로서, 훗날 왕세정이 지은 「吳中往哲像贊」은 바로 오중의 이러한 인물지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특히, 왕세정을 추숭하는 대표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근수의 「上王主事書」만 보아도, 왕세정의 고향인 太倉을 아울러서 일컫는 ‘吳會’(오중의 별칭)에 대한 감회는 매우 특별하다.

고<sup>2)</sup> 集部의 總集類一般에 수록해 놓고 있다. 선불리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중국과 대만의 善本 古籍 관련 데이터베이스나 연구자들이 상용하는 中國基本古籍庫에서도 “正嘉八才子”라는 명칭이나 동일한 서명을 가진 문현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 책의 존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화권 학술계에서 더더욱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황명정가팔재자문초』에 대한 연구는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이 책이 제공하는 자료적 한계, 즉 누가 언제 선집하고 간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八才子’는 모두 16세기 명대 중엽 正德(1506-1521), 嘉靖(1522-1566)연간에 활약했던 문인들이다. 그들의 산문 작품이 중국이 아닌 조선에서 개인의 문학취향 혹은 동호인들의 요구에 의해 『황명정가팔재자문초』라는 선집으로 간행되었을 때, 이 편집물은 이미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본토화’ 작업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편자와 간행연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조선 독자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의미’ 파악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난관은 조선에서 간행된 『황명정가팔재자문초』를 그것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시적 문화환경 즉 조선문단의 어느 시기, 어떤 흐름 속에 배치시켜 논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선집기준과 간행시기를 중심으로 필자의 관점을 정리할까 한다. 조선 문학사 혹은 조선 문단의 흐름에서 이 선집본이 위치하는 ‘좌표’가 어느 지점인가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하여, 필자의 기초 작업이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기대한다.

## 2. 『皇明正嘉八才子文抄』의 선집기준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체제는 氏名事蹟, 八才子 산문선, 明文附篇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에 몇몇 평어를 삽입해 놓았으며, 책의 말미에 추가된 「明文附

---

2)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凡例」의 제1 收錄範圍 참조.

篇』의 경우 시작부분에 짧은 서문을 첨부해 놓았다. 본 절에서는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선집기준에 대해 편자의 문학적 취향, 작가군의 선별범위, 문학비평의 준거 등 이상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편자의 문학적 취향——육조문풍의 情辭兼麗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문학적 지향성을 분명하다. 선취한 팔재자의 산문 소개가 끝나고 말미에 첨부한 「明文附篇」의 짧막한 서문에서 편자의 취향은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팔재자는 문장이 모두 육조의 풍격을 숭상하여 문사의 조탁이 다채롭다. ‘창곡 서정 경에서 단초를 보이기 시작해서, 면지 황성중에 이르러 성해졌다’라고 한 왕세정의 비평이 확실히 근거 없는 말이 아니구나.<sup>3)</sup>

편자는 팔재자의 문장이 모두 육조문학의 풍격을 숭상하여, 문체의 운용이 능숙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육조문학의 문채미에 대한 긍정 뿐만 아니라 화려한 문사 이면에 내재한 진솔하고 다채로운 감정 또한 편자가 상당히 중요시하는 선집기준이다.

이소경(李少卿)의 「소속국에게 답한 글(報蘇屬國書)」은 비록 후대 사람이 가탁한 작품이긴 하나, 그 문사가 비장하고 마음속에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실로 여운이 깊다. 참으로 육조문학의 고수로다.<sup>4)</sup>

인용된 문평은 팔재자 중의 한 사람인 왕정진의 「탁중승에게 올리는 편지(上翟中丞書)」 작품에 덧붙인 것이다. 少卿은 서한시대의 명장 李陵의 字이다. 답신 대상인 “蘇屬國”은 蘇武를 지칭하는데, 소무는 흥노땅에 인질로 잡혀 19년을 억류당

3) 「明文附篇」“八才子者 文皆尙六朝 藻彩爛如王鳳洲所稱 ‘昌穀示委 勉之汎瀾’云者 信不巫矣”

4) 『皇明正嘉八才子文抄』“少卿「報蘇屬國書」雖屬贊作 其辭悲壯感慨 篤有致 故是六朝高手 明唐伯虎「答文徵明」差堪叔季 稚欽此篇次乎”

하였다가 본국 송환 후 典屬國 즉 속국을 관리하는 벼슬을 하고 있었으므로 관직명으로 상대를 존칭한 것이다. 「소속국에게 답한 글」은 현행본 『문선』의 「答蘇武書」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전히 흉노 땅에 남겨진 채 돌아갈 기약 없는 李陵이 고향땅 한나라로 돌아간 蘇武에게 답하는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인용문은 편자가 唐寅의 「答文徵明」과 王廷陳의 「上翟中丞書」를 이릉의 편지글에 견준 것으로, 특히 ‘그 문사가 비장하고 마음속에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실로 여운이 깊다’라는 문구에서, 편자가 작품을 뽑을 때 賞情을 중시한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 2) 작가군의 선별범위—“昌穀示委, 勉之汎瀾”

‘정가팔재자’는 武宗正德年間(1506-1521)에서 世宗嘉靖年間(1522-1566)에 활약한 여덟 문인의 문장을 수록한 것이다. ‘八才子’는 徐禎卿(1479-1511), 唐寅(1470-1523), 王廷陳(1493-1550), 田汝成(1503-1557), 陳東(1501-1543), 袁袞(1502-1547), 黃省曾(1490-1540), 皇甫汸(1497-1582)을 가리킨다.<sup>5)</sup> 또한 선집의 말미에 동시기의 문인 張治道, 鄭曉, 胡侍, 王維楨, 童承敍, 陳德文, 何良俊 등 7인의 문장도 부록으로 첨부해 놓았다. 일군의 작가가 뭘 의미하는가는 『明文附篇』의 서문을 참조하면 파악이 가능한데, 팔재자의 공통점이 육조문풍에 대한 숭상이라는 진술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창곡 서정경에서 단초를 보이기 시작해서, 면지 황성증에 이르러 성해졌다’라고 한 왕세정의 비평이 확실히 근거 없는 말이 아니구나. 서정경과 왕세정의 시대에 장치도(張治道), 왕유정(王維楨) 등의 작가들과, 하량준(何良俊), 진덕문(陳德文) 등의 무리들도 명성을 나란히 하고 뒤따르며 예원(藝苑)에서 빛을 발휘하였다. 오늘 여러 작가들의 문장을 각각 몇 편씩 뽑아서 팔재자의 뒤에 첨부하였다.<sup>6)</sup>

5)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才子’는 ‘大家’와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차등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여 진다. 가령 팔재자를 『皇明五大家律詩抄』(이몽양, 이반룡, 하경명, 왕세정, 오국륜), 『三大家詩全集』(두보, 이백, 한유), 『皇明茅鹿門王弇州二大家文抄』(모근, 왕세정) 등의 경우와 대조해 보면 그러한 의도가 더욱더 분명해진다.

6) 『明文附篇』 “藻彩爛如王鳳洲所稱 ‘昌穀示委 勉之汎瀾’云者 信不巫矣 徐王之世 復有張治道

팔재자의 수록 범위는 한마디로 “昌穀示委, 勉之汎瀾”이다. 즉, 명대 중엽 육조문학적 경향은 서정경에서 시작되어 황성중에 이르러 뚜렷해졌다는 의미이다. 서정경과 황성중을 기점으로 동일시기의 유사한 文風의 작가를 모았다는 것인데, 만약 「明文附篇」까지 고려해서 전체 수록 범위가 나타내는 의미를 논한다면, 일곱 문인 중 졸년이 가장 늦은 하량준(1506-1573)을 염두에 둘 경우, 아마도 “徐王之世” 즉 서정경에서 왕세정에 이르는 시기를 범위로 육조 문학적 특성을 보이는 작가군이 아닐까 한다.

다음은 八才子의 산문작품과 明文附篇의 작가 및 작품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八才子와 산문작품 30편

八才子	작 품	體 式	편수
徐禎卿	「答李獻吉書」, 「重與獻吉書」, 「與室人序別」, 「與文子序別」, 「詩說」	書, 序, 雜著	5
唐 寅	「與文徵明書」, 「上吳天官書」	書	2
王廷陳	「上翟中丞書」, 「答張東沙書」	書	2
田汝成	「答陳約之書」, 「與屠諭德文升書」, 「西湖遊覽志序」, 「重刻文選序」, 「治邑要言序」, 「福建鄉試錄序」, 「潮溪草堂圖記」, 「阿寄傳」	書, 序, 傳, 記	8
陳 束	「屠漸山書(附:屠漸山應塚與陳約之書)」, 「蘇門集序」, 「閱視靖州碑」	書, 序, 碑	3(1)
袁 羲	「復李驗封伯華書」, 「譏應」, 「江南春詞序」	書, 序	3
黃省曾	「寄北郡空同李公書」, 「李空同先生文集序」	書, 序	2
皇甫汸	「陳后岡集序」, 「夢澤集序」, 「司直兄少玄集序」, 「送周子忠守臨洮序」	序	4

王維楨諸子 何良俊 陳德文輩 並跡躡武 皆彬彬藝苑矣 今取諸家文各數篇 附于下”

## 〈표 2〉 明文附篇11편

작 가	작 품	體 式	편수
張治道	「答薛君采書」, 「耽詩論」	書、論	2
鄭 晓	「漢黨人論」	論	1
胡 侍	「碑志論」, 「與馬仲房書」	書, 論	2
王維楨	「答許少華書」, 「送柳濱先生赴平涼苑馬寺序」	書, 序	2
童承敘	「與胡寵之書」	書	1
陳德文	「嵇中散集序」, 「刻阮步兵集序」	序	2
何良俊	「與郡守熊軫峯先生書」	書	1

『황명정가필재자문초』의 편자가 선취한 작품의 體式은 ‘書’, ‘序’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書’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처럼 육조문풍 경향의 작품을 쓴 필재자는 명대문학사에서 과연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명대문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정덕, 가정 연간에는 전칠자의 문학활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다양한 대안을 가진 군소유파들이 등장하였는데, 명대 중엽의 ‘嘉靖八才子’<sup>7)</sup>는 이러한 문단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 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嘉靖연간의 초엽에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학습 전범을 표방함으로써前七子가 쇠퇴하고 아직 강력한 문학유파가 출현하기 이전의 과도기 상태를 보여준다. 前七子를 추종하는 아류들이 秦漢古文과 盛唐杜甫를 각각 詩文의 전범으로 삼았지만 현실창작에서는 표절로 전락한 것에 비판하고, 새로이 初唐詩와 唐宋古文을 문학 전범의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움으로써, 전칠자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필자는 연구구상 단계에서 『황명정가필재자문초』의 필재자 또한 명대중엽 전칠자의 폐단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작가들로 고려했다. 육조문학이 부각된 것은 문학전범에 대한 다각도적 접근이라는 당시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판단했기 때

7) 명대중엽 문단에서 상용되는 ‘嘉靖八才子’라는 칭호는 李開先, 王慎中, 陳束, 趙時春, 熊過, 任瀚, 呂高를 가리킨다. 『황명정가필재자문초』의 문인 중에 ‘진속’ 한 사람만 이에 해당한다.

문이다. ‘명대문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八才子’의 구성원 역시 명대중엽 과도기에 두각을 드러낸 작가군이라 할 만하다. 다만 그들이 하나의 유파를 형성해서 함께 활동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팔재자 중 다섯 사람, 즉 徐禎卿, 唐寅, 黃省曾, 袁袞, 皇甫汸이 모두 吳中출신(현 강소성 소주일대)인데, 오중지역은 풍나라 아래 육조문학적 기풍이 이미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이 지역 문인들의 육조문학에 대한 중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문화 전통 속에 이미 뿌리 깊게 형성된 것이며, 전칠자에 대항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의도적 표방을 한 것은 아니라 는 의미이다.

이들의 교유관계는 하나의 문학집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고 산별적이며 유동적이다. 黃省曾과 皇甫汸은 사촌지간이며 동향인데다 오중문단에서도 육조문풍을 대표하는 문인이다. 황보방은 왕신중, 당순지, 진속, 이반룡, 왕세정, 왕정진에 이르기까지 교유의 폭이 매우 넓다. 그리고 田汝成과 황성중은 항주의 산수풍광을 유람할 때 함께 동행하며 수창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西湖遊覽志』와 『餘志』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皇甫汸, 田汝成, 陳東, 袁袞은 모두 명대중엽의 문인 高叔嗣(1501-1537, 자는 子業, 호는 蘇門山人)와 교류하였다. 이들의 교유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答陳約之書」, 「西湖遊覽志序」, 「蘇門集序」, 「陳后岡集序」, 「夢澤集序」가 본 문선집에 수록된 점에서, 편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여성이 팔재자에 합류된 점은 명대중엽의 문단측에서 보자면 좀 생뚱맞지만, 만약 시야의 주체를 조선문인으로 상정하고 아울러 당시의 강남열과 산수유기 블을 함께 고려한다면, 저자의 이러한 편입은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전여성 등이 서호를 유람하고 남긴 각종 기문은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장기간 유행되었다. 가령, 16세기 말 신흠은 중국 여행에서 귀국할 때 이 책을 유입(1594)한 후 틈틈이 발췌하여 『臥遊清賞』을 만들고, 훗날 증보본 『藍田遺璧』까지 엮었다. 비슷한 시기의 허균이 주자번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1606)을 기초로 편집한 『閑情錄』(1611) 역시 동류의 편찬물이다. 17세기 후반부에 이르면 김수증의 『臥遊錄』(1664), 김창협의 『文趣』, 김창습의 『澄懷錄』(1681년)으로 이어지면서 유행이 계속되었다.<sup>8)</sup>

물론 이 문선본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두 인물 즉 서정경과 황성중의 작품 중 「答李獻吉書」, 「重與獻吉書」, 「寄北郡空同李公書」, 「李空同先生文集序」와 같이 전칠자와 영수 이몽양과 나눈 편지글이 선취된 점에서 팔재자와 전칠자 및 그들의 문학전범을 계승한 왕세정과의 관계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서정경과 황성중 이외의 나머지 여섯 문인들과 전후칠자의 연결고리가 명확치 않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전후칠자의 계열로 포괄하여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보여 진다. 게다가 ‘絕類建安’이라는 평어에 유의하면, 편자의 시선은 역시나 편지의 대상인 이몽양이라기 보다는 편지글 자체가 지닌 육조풍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팔재자’의 교유관계는 대체적으로 긴밀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대문단의 각도에서 보면 하나의 문학유파로서의 결속력이 강하지 않다. 결국 여덟 문인이 ‘팔재자’로 묶이게 된 핵심 관건은 그들의 산문작품이 육조의 문체미와 진솔한 감성을 중시했다는 점인데, 이 선집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명대 쪽의 상황보다는 조선 문인과 문단에 대한 더욱더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 3) 문학비평의 준거—“王鳳洲所稱, 信不巫矣”

상술한 바와 같이, 『황명정가팔재자문초』는 六朝文學을 문학전범으로 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편자가 王世貞(1526-1590, 자는 元美, 호는 鳳洲)의 비평안에 따라 팔재자의 작품을 해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자는 “왕봉주가 비평한 내용들이 확실히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王鳳洲所稱, 信不巫矣)”라고 하여, 왕세정의 시문비평서인 『藝苑卮言』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전편에 걸쳐 왕세정의 문평을 전재하였다.

다음은 편자가 선집에서 원용한 왕세정의 시문비평을 작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8) 16·17세기 무렵 조선 문인의 산수유기 열풍을 반영하는 편찬물과 관련 내용은 다음에 상세하다. 정민, 2002 「16·1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古典文學研究』 제22집, 281-306면. 이종목, 2004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震檀學報』98, 81-106면.

〈표 3〉『皇明正嘉八才子文抄』작가별 文評表

작가	수록면	文 評	출처
徐禎卿	氏名事蹟	昌穀少卽摛詞，文匠齊梁。詩沿晚季，迨舉進士見獻吉始大悔改，其樂府、選體、歌行，絕句，咀六朝之精旨，採唐初之妙則，天才高朗，英英獨照，律體微乖整栗，亦是浩然、太白之遺也。驪誄頌筭，宛爾潘陸。	藝苑卮言卷六
	「答李獻吉書」의 뒤	絕類建安	편자의 평어
	「重與獻吉書」뒤	練而不琢	편자의 평어
	본문 마지막	王世貞曰：昌穀始與大梁李夢陽、信陽何景明善，文章操縱六代而出入於景龍、開元間，時吾吳中獨先生能狎主中原盟，而惜其蚤死，不獲持牛耳，然『延功集』、『談藝錄』亦足以雄矣。	『弇州續稿』卷一百四十八文部「吳中往哲像贊」
唐寅 王廷陳	본문 「上翟中丞書」뒤	少卿「報蘇屬國書」雖屬贗作，其辭悲壯感慨，篤有致，故是六朝高手，明唐伯虎「答文徵明」差堪叔季，稚欽此篇次乎！	藝苑卮言卷六
王廷陳	氏名事蹟	王世貞曰：「桺欽少爲文，頃刻便就，多奇氣，意不可一世，僅推何景明，而好薛惠，鄭善夫，晚節詩律尤精好，有『聞笙』一首：『花月可憐春，房櫩嘆玉人，思繁纖指亂，愁劇翠蛾顰，授色歌頻變，留賓態轉新。曲終仍自叙，家世本西秦。』又一書答人云：『綺席屢改，伎倆雜陳，絲肉競奏，宮徵唱和，義和既逝，蘭膏嗣暉，逸興狎悰，干霄薄雲，禮廢罰弛，履遺纓絕。』俱妙極形容，可謂才子。」	藝苑卮言卷七
田汝成	氏名事蹟	其所著，諸文頗多，詞旨玄朗，馳騁六朝，流輩莫及云。	『盛明百家詩·田豫陽集』
陳束	氏名事蹟	王世貞稱：其文出東京，雜史雅潔可喜。詩如青樓少女月下箜篌，初取閑適，終成淒楚。又如過雨殘荷，嫣然有態。	藝苑卮言卷五
袁袞	氏名事蹟	弇州云：「永之高狷自好，文殊清雅典則，非他瑣瑣比也。」	藝苑卮言卷七
黃省曾	氏名事蹟	其文出潘陸任庾。王世貞嘗序文評曰：「六朝之華，昌穀示委，勉之汎闊。」	藝苑卮言卷五
皇甫汸	氏名事蹟	其詩五言律最工，七言次之，有錢劉風調；文慕稱六朝云。	『弇州續稿』卷一百四十九文部「吳中往哲像贊」

위의 문평표를 보면, 편자가 본문 외에도 「氏名事蹟」의 시문비평에 상당한 공력을

을 쓴은 점이 역력하다.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권두에 배치된 「氏名事蹟」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작가의 姓名字號, 貫鄉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登科年, 官歷, 生平遭遇, 卒年 순으로 명기하고, 해당 작가의 문학특장과 원류 등에 관한 내용은 王世貞의 시문평을 인용하였다. 「氏名事蹟」은 사실상 명대중엽 육조문풍의 작가와 문학특징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인물소전(小傳)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편자가 이 소전을 작성하기 위해 주로 참조한 서적은 왕세정의 『藝苑卮言』, 『弇州山人續稿·吳中往哲像贊』이나, 당인, 황성증, 전여성의 경우 특별히 愈憲의 『盛明百家詩』 등을 별도로 참조하였는데, 이는 황성증 부분에서 편자가 남긴 “愈憲曰”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명대문학 수용에 있어 육조문풍의 작가와 작품이 중시된 점은 그간 국내 한문학계에서 조선 중후기 문단에서 일어났던 復古思潮를 진한고문, 당송고문 두 갈래 큰 흐름에서 조명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왕세정은 李攀龍과 함께 후칠자 복고문단의 영수이나, 복고전범에 대한 그의 태도가 상당히 유연하고 포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왕세정의 대표적 문학관이 진한고문을 전범으로 삼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 편자가 왕세정의 관점에서 ‘진한고문’ 혹은 최소한 ‘진한고문’과 함께가 아닌 ‘육조문학’적 경향을 띤 작가와 작품을 전적으로 선집한 점에서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조선조 후기 문예 공론 장에서 왕세정이 다양한 충위에서 향유된 현상에 주목한 진재교의 견해를 참조할 만하다. 즉, 조선조 후기 문인들은 “자신들의 문예적 지향과 취향을 드러내기 위하여 혹은 명대의 詩文의 史的 문제를 비평하고, 때로는 문예론을 논하는 자리에서 권위와 문예지식을 표출하기 위하여 왕세정을 거론하였다. 이 외에도 의고를 논란하는 자리에 전후칠자나 왕세정을 끄집어내어 취사선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왕세정을 호출하였다.”<sup>9)</sup>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면,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편자는 자신의 문학적 취향인 ‘육조문학’ 선집에 왕세정 문학비평의 권위를 차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9) 진재교, 2014 「조선조 후기 문예공간에서의 왕세정」, 『한국한문학연구』54, 164-165면.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편자가 왕세정의 문학비평에 권위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왕세정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편자는 왕세정의 시문평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왕세정 시문평에 대해 약간의 수정을 가함으로써 개인의 문학적 견해 표출을 시도하였다. 가령,

明唐伯虎「報文徵明」, 王稚欽「答余懋昭」二書, 差堪叔季. (『藝苑卮言』卷六)

明唐伯虎「答文徵明」差堪叔季, 稚欽此篇次乎! (『皇明正嘉八才子文抄』)

두 인용문을 상호 대조하면서 편자의 인용 문구를 분석해보면, 왕세정의 어감보다 편자의 뉘앙스가 더욱더 돌출되어 있음이 느껴진다. 즉 『藝苑卮言』은 당인과 왕정진의 작품을 나란히 높이 평가하여 이릉의 서간문에 견줄만하다고 보고 더 이상 우위를 가리지 않았다. 반면 편자는 당인의 「報文徵明」을 왕정진의 작품보다 더 높이 평가하였고, 선별한 작품 또한 「上翟中丞書」인 점에서 왕세정의 「答余懋昭」와 다소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여성의 경우에서도 더욱더 두드러진다. 팔재자 중 나머지 7명은 모두 『藝苑卮言』의 5권, 6권, 7권에 흩어져 있는 시문평 가운데 육조문학 경향을 보이는 명대 작가를 선별적으로 취합한 것이다. 왕세정은 『藝苑卮言』에서 전여성 관련 문학 비평을 남기지 않았는데, 편자는 독자적 안목에서 전여성을 팔재자에 포함시키고, 生平과 시문평을 기록하기 위해 榞憲의 『盛明百家詩·田豫陽集』에서 내용을 끌어온 것이다. 수록 작품 수량 또한 총 8편으로, 선집 기준이 되는 두 작가인 서정경 5편, 황성중 2편과 분량상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전여성에 대한 편자의 애호는 특별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비록 많지는 않으나 편자는 왕세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비평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가령 서정경 작품 「答李獻吉書」의 말미에 붙인 “絕類建安(건안문학 풍격과 아주 유사하다)”, 또 「重與獻吉書」가 끝난 부분에 “練而不琢(다듬었으되 조탁하지는 않았다)” 등 간단한 평어를 삽입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예들이다.

### 3. 『皇明正嘉八才子文抄』의 간행시기

『황명정가팔재자문초』는 편자 및 간행시기를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추정할 만한 序跋文이나 刊記도 없다. 현재 총 4종이 규장각, 장서각, 고려대에 각각 소장되어 있으며, 版種은 모두 활자본이다. 그간 간행시기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대체로 문헌 소장기관에서 진행된 서지정보와 해제류가 주축을 이루며, 이마저도 한 두 편의 논문에서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다.

선행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판형식’에 있다. 즉 인출에 쓰인 활자가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이 책의 간행시기를 유추하는 것인데, 곤혹스러운 점은 판독에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문학연구자인 필자는 특히 조선의 활자에 대한 판독과 같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러한 이견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각도를 달리하여 ‘판형식’이 아닌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텍스트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책의 간행시기 관련 선행연구를 보충하고자 한다.

『황명정가팔재자문초』는 Kanseki Database(全國漢籍データベース)의 검색 결과 일본 靜嘉堂 문고에도 1종이 소장된 것으로 보이나, 필자는 아직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다.<sup>10)</sup> 본고에서는 일단 고찰 범위를 실물 확인이 가능한 국내 소장본 四種으로 한정시키고, 우선 간행시기 관련 선행연구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 1) 현 국내소장본 四種의 간행시기 관련 선행연구

다음은 국내 소장본 총 4종을 규장각, 장서각, 고려대의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 (1) 규장각 1종

규장각 소장 套 3905의 관련 서지자료를 해당 사이트의 게시 내용 및 규장각 목록서적, 해제류집으로 나누어서 정리했다.

10) 集部 總集類 『皇明正嘉八才子文抄』一卷 編人缺 朝鮮刊 1册. 정가당 소장 외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자료정보관」사이트의 검색결과에 의하면, 京都府立總合資料館에도 1종 소장되어 있다고 하여, 일본의 해당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됐다.

① 서지정보

판사항--金屬活字本(乙亥字)；刊寫年未詳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集部總集類·一般」：活(乙亥字)<sup>11)</sup>

② 해제 및 어학해제

戊申字本,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조선에서 간행된 것이 분명함.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集部2』：古活字本(戊申字)<sup>12)</sup>

(2) 장서각 2종

① K4-415

판사항--金屬活字本(戊申字版)；顯宗-肅宗(1668-1720)

② K4-416

판사항--金屬活字本(戊申字版)；顯宗-英祖(1668-1771)

(3) 고려대 1종(화산 D2 A336)

판사항--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刊寫年未詳

이상 四種의 인출 활자에 대한 판독 결과는 ①을해자본 ②초주갑인자본 ③무신 자본(사주갑인자본)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현 국내 소장본 4종의 활자체를 대조해 보면 모두 동일본으로 추정되며 이본의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연구자들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나 논증과정을 생략한 채, 판독 결과를 각자의 조선 문학 관련 각종 주제 분석에 각각 ‘선택적’으로 취사 및 응용했을 때, 그에 따른 연구 결과 또한 필연적으로 많은 차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령, 육영정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朝鮮前期 總集類 書籍과 서지학적 가치」라는 글에서 “규장각 소장본은 을해자인본으로 16세기의 간본이다”라고 인식하고, ‘조선전기’에 간행된 후 “큰 전쟁으로 인한 약탈, 소실에도 불구하고 책이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이라는 기준에서, 『황명정 가팔재자문초』를 규장각 소장본 總集類의 ‘귀중본’으로 규정하였다.<sup>13)</sup> 한편, 이보다

11) 서울大學校 奎章閣 編, 1994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下冊, 서울大學校奎章閣, 1485면.

12) 서울大學校 奎章閣 編, 1993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集部2』, 서울大學校奎章閣, 480면.

10여년 앞서 발표된 최은주의 논문 「조선후기 시문선집에 나타난 명대 문학의 수용 양상」에서는 규장각 해제 작성자인 김영진의 판독 결과를 원용하여 「조선후기」 문단의 시문선집 간행 및 수용상황 연구에 응용하고 있다.<sup>14)</sup> 이는 판독에 대한 이견들이 연구자의 선택 및 응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해당 문선집의 성격 규정까지 적지 않은 차이를 야기 시킨 단적인 예증들이다.

물론, 조선 독자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의미’가 단 ‘한 가지’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러나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간행시기를 둘러싼 논의에 있어 기준의 ‘판형식’ 외에 좀 더 다양하고 다원화된 접근방식과 토론이 절실히 요구된다.

## 2) 텍스트 내용 검토를 통한 간행시기 논의 보충

필자는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본문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 책의 간행시기 관련 논의를 보충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본 『황명정가팔재자문초』는 17세기 중반 이후 간행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편자는 六朝문학을 선집기준 및 전범으로 삼고, 왕세정의 시문비평에 의거하여 명대중엽 팔재자의 산문을 편집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원용한 왕세정 문평은 본문의 중간에 첨부한 몇몇 평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씨명사적」에서 인물의 약력을 소개하고 말미에 덧붙인 문학비평 또한 전여성 만 빼고 대부분 왕세정에 근거하고 있다. 왕세정 문평의 출처는 주로 『藝苑卮言』

13) 이에 대한 논거는 옥영정, 201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朝鮮前期 總集類 書籍과 서지 학적 가치」, 『奎章閣』4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4-25면에 따른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의 초고를 “2015년도 규장각 선발 신진학자 연구발표회”(2016년 1월 29일)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옥영정 선생께서 2015년 논문작성 당시 언급한 27종의 조선전기본에 대해, 실물확인하지 못한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목록 오류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글을 수록하게 되었음을 필자에게 알려 주었고, 필자의 글을 통해서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수정 되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그의 글 중에 27종의 조선전기 간본은 『황명정가팔재자문초』 1종을 삭제한 26종이고, 판본은 조선전기 읊해자본이 아니라 후기의 무신자본임이 확인 되었다. 필자가 본문에서 지적한 부분이 이와 같이 정정되었음을 간략히 밝혀둔다.

14) 최은주, 2003 「조선후기 시문선집에 나타난 명대 문학의 수용 양상」, 『동방한문학』24, 동방한문학회, 271-296면.

의 卷五, 卷六, 卷七이나, 이 외에도 왕세정의 말년 작품을 수록한 『弇州續稿·吳中往哲像贊』 또한 선집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徐禎卿과 皇甫汸에 대한 논평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이는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간행연대 파악에 있어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조선간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선집 및 간행은 최소한 『弇州續稿』(이하 『續稿』로 약칭함)의 조선 유입이 선행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우선, 徐禎卿 산문작품 마지막에 덧붙인 왕세정의 평어와 『續稿·吳中往哲像贊』을 대조해 보고자 한다.

王世貞曰：昌穀始與大梁李夢陽、信陽何景明善，文章操縱六代而出入於景龍、開元間。時吾吳中，獨先生能狎主中原盟，而惜其蚤死，不獲持牛耳。然『廸功集』、『談藝錄』，亦足以雄矣。（『皇明正嘉八才子文抄·徐禎卿』）

徐廸功先生禎卿字昌穀，吾州人也，而徙于郡。先生自爲諸生卽與唐寅，文璧相唱酬有名，而其語高者上彷彿齊梁，下亦不失溫李以爲快。既成進士，始與大樑李夢陽、信陽何景明善，而夢陽稍規之古，自是格驟變。而上操縱六代而出入于景龍、開元間。初若要駕不受羈，徐而察其步驟開闢，鮮不中繩墨者。當是時吾吳中獨先生能狎主中原盟，而惜其蚤死，不獲持牛耳。然『廸功集』、『談錄藝』亦足以雄矣……（『弇州續稿·吳中往哲像贊』卷148）

위의 평어 전문과 아래 인용문 중 글씨체를 굵게 처리한 부분이 서로 거의 일치한다. 특히 “昌穀始與大梁李夢陽、信陽何景明善”의 “始”자를 보면 이 글의 출처가 「오중왕칠상찬」임을 확신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사실상 앞 문장 즉 “其語高者上彷彿齊梁，下亦不失溫李以爲快” 구절과 연결하여 읽어야 서정경이 오중시절에 당인, 문정명 등과 수창하며 유미주의적인 육조풍격에만 머물러 있다가, 과거급제 후 오중을 떠나 중원에서 벼슬을 하게 된 이후 ‘비로소’ 이몽양, 허경명과 교류하면서 성당시를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문학의 격조가 크게 일변하였다는 뉘앙스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편자는 뒷 구절을 발췌하면서 “始”자를 여전히 남겨둔 탓에 뜻 전달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씨명사적」의 皇甫汸 소개 부분과 『續稿·吳中往哲像贊』 역시 상호 대조를 통해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兄弟四人皆有文彩。百泉以己丑登第，官雲南按察僉事。性和易，不設城府。爲詩文，沾沾自喜。好聲色，工狎游，而不能通知戶外事，以故數困。然信心而行，以文自娛。于諸兄弟中獨壽考，年八十乃卒。其詩五言律最工，七言次之，有錢劉風調；文慕稱六朝云。（『皇明正嘉八才子文抄·氏名事蹟·皇甫汸』）

雲南按察僉事皇甫先生汸字子循，百泉其別號也。父曰重慶守錄先生。兄弟四人皆有文彩，沖不得志於公車以死。淳濂與先生雖得第，然其官不大顯。而先生自工部郎外補不能其職，改國子博士，旋起爲南京吏部，謫同知某州。爲御史王言所捕，亡命得解，補開州，超同知處州。尋，遷雲南按察僉事，大計中，自簡歸。處鄉，復爲陳御史所窘，家幾破。先生性和易，不設城府，爲詩文，沾沾自喜，好聲色，工狎遊而不能通知戶外事，以故數困，然信心而行，以文自娛。于諸兄弟中獨壽，老年八十乃卒。其詩五言律最工，七言次之，有錢，劉風調；文慕稱六朝，然時時失步……（『弇州續稿·吳中往哲像贊』卷149）

이상, 서정경과 황보방에 대한 평어는 그 출처가 모두 왕세정의 문집 『弇州山人續稿』에 수록된 「吳中往哲像贊」임이 확인되었다. 「오중왕철상찬」은 인물의 小傳에 속하는 글로서, 명초에서 16세기 말엽까지를 범위로 삼고 있다. 고향인 태창이 속한 오중지역의 名賢 112명에 대해, 생평, 공적, 문학경향, 일화, 인품, 개성, 인생조우 등을 약술해 놓았으며, 또 해당 인물의 초상화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贊文으로 끝맺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 徐禎卿과 皇甫汸의 문학적 특성이 『藝苑卮言』이 아닌 「오중왕철상찬」에서 언급된 것도 바로 이 인물전기 내용의 풍부함 때문이다. 이 작품은 분량 또한 방대하여 『續稿』의 卷一百四十六에서 卷一百伍十까지 총 5권에 달한다. 권150의 말미에 자신 보다 2년 먼저 세상을 뛴 아우 王世懋(1536-1588)도 함께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건대, 「오중왕철상찬」은 왕세정 말년까지 편찬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중지역은 예로부터 인재가 많기로 이름 난 곳이다. 선후배관계가 지극히 돈독하여 향토명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 인물지 제작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이러한 편찬활동은 명대중엽 흥치연간에서부터 명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太倉州 출신인 왕세정이 「오

중왕철상찬』을 찬술한 것 또한 이러한 오중土風에서 연원한다.<sup>15)</sup>

다음으로, 『續稿』의 조선 유입시기 파악에 앞서 처리해야 할 것은 이 문집의 중국 간행연대를 파악하는 일이다. 왕세정의 첫 번째 문집인 『弇州山人四部稿』는 그의 나이 52세인 萬曆五年(1577)에 吳郡에서 간행되었다. 반면, 두 번째 문집인 『續稿』의 경우 간행연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王錫爵의 서문을 통해 그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선생이 무운(撫貯)에 재직할 때 『四部稿』를 간행하였다.……공은 응천부(應天府) 형부상서(刑部尙書)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병이 위독해져 그간 모은 작품을 간행하지 못하게 되자, 막내 왕사준에게 뒷일을 맡겼다. 얼마 되지 않아 사준마저 죽자, 장자 가부군(駕部君) 왕사기가 그 유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2년여 기간을 들여서 비로소 문집을 완성시켰다.<sup>16)</sup>

현행본 『續稿』 207권은 『弇州山人四部稿』(1577) 완성 이후, 주로 왕세정 晚年 신종만력4년(1577)에서卒年인 만력18년(1590)까지의 작품을 수록한 것이다. 왕세정이 직접 문집 정리를 하였으나 병으로 인해 생전 간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뒷 일을 막내 王士駿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왕사준 마저 만력 25년(1597)에 죽자, 결국 장남 王士駿가 부친의 유언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왕석작의 서문 “俄而駿沒, 長子駕部君續其事, 兩閱歲而集始成”이라는 문구가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이며, 결국 『續稿』는 왕사준이 죽은(1597) 뒤 2년 후, 다시 말해 약 1599년(만력27년) 전후에는 간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7)</sup> 다만, 1599년에 출

15) ‘오중’은 현 강소성 蘇州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16세기 명대 중엽 오중지역의 당시 명칭은 蘇州府이다. 소주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1주7현 즉, 吳縣、長洲縣、吳江縣、崑山縣、常熟縣、嘉定縣、崇明縣 및 太倉州이다. 오중인물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상세하다. 김정숙, 2015 「『세설신어』 독자형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명대 중엽 홍치년간(弘治年間) 강남 오중문인(吳中文人)의 인물지」, 『東方學志』 171, 연세대국학연구원, 131-164면.

16) 「弇州續稿序」, “先生撫鄆時 刻有『四部稿』……公自司寇歸 痘亟(1590) 哀所未刻 以付其少子駿 俄而駿沒 長子駕部君續其事 兩閱歲而集始成”(明)王錫爵, 2000 『王文肅公文集』 卷1, 北京 : 北京出版社, 四庫禁燬書叢刊 集部第7冊, 47-49면. 원문에 삽입된 연도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며, 이하 모두 동일하다.

판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조선은 兩亂 직후 혼란한 상황이었다. 중국과 동시기에 수평적으로 바로 조선에 유입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문선집으로까지 연결되기를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황명정가 팔재자문초』는 16세기에 간행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황명정가 팔재자문초』의 간행시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續稿』의 조선내 유전상황을 확보해야 한다. 왕세정 문학작품의 조선내 독자층 궤적은 전후칠자의 문학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문인들, 즉 윤근수를 필두로 허균, 신흠, 신최, 김석주 등에서 확인이 된다. 우선, 尹根壽(1537-1616)의 관련 기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얼마 후 연경으로 가는 길에 『사부고』를 구입하였습니다.……그 뒤 4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불행하여 섬나라 오랑캐에게 화를 입었습니다. 갑오년(1594, 선조27) 겨울, 또 군사와 군량을 청하는 일로 사명을 받들고 연경에 갔습니다.……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부고』는 병화로 잃어버렸기에 다시 다른 것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책상 위에 모셔 두고 있습니다.<sup>18)</sup>

인용문은 윤근수가 왕세정의 장남 왕사기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윤근수가 『弇州山人四部稿』를 구득한 것은 약 1580년대로 추정가능하나 그의 다른 글에서도 『續稿』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윤근수 뿐만 아니라 특히 許筠(1569~1618)의 경우 왕세정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실로 크다 하겠다. 가령, 『惺所覆部藁』(광해군3년, 1611)의 편제방식이 詩, 賦文, 說의 四部체제를 취한 것은 『弇州山人四部稿』에서 연원하며, 뿐만 아니라 이 문집의 도처에 언급된 관련내용으로 볼 때, 허균이 왕세정에 경도된 정황은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현행본 『閑情錄』의 범례에 덧붙여진 짧은 서문에는 허균이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서적과 관련된 대목이 있다.

17) 『弇州山人續稿』의 간인시기 관련 더욱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魏宏遠, 2008 『王世貞晚年文學思想研究』, 上海 : 復旦大學中國古代文學研究中心博士論文, 32-33면.

18) 윤근수, 『月汀集』 卷5, 「上王主事書-士騏」, “既而因赴京之行 而購得『四部藁』…… 其後四年(1592) 而敝邦不幸被島夷之禍 在甲午冬(1594) 又以請兵請糧 奉使如京……緣前所有『四部藁』見失於兵火 又得他帙而歸 至今尊閣之案上矣”

내가 일찍부터 집에 있는 사적(史籍)이 적고 이 「한정록」이 매우 간략(簡略)한 것 이 아쉬워, 여기에 유사(遺事)를 첨입(添入)하여 전서(全書)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 계획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바빠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갑인(1614) · 을묘(1615) 양년(兩年)에 일이 있어 북경에 가게 되어, 그때 집에 있는 돈으로 약 4천 권의 책을 구입하였다.<sup>19)</sup>

인용문은 『한정록』의 편집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경술년(1610) 주지번이 선물한 책을 기초로 편집을 했으나 자료의 부족을 절감하였고, 이후, 갑인년(광해군6년, 만력42, 1614)과 을묘년(광해군7년, 만력43년, 1615)에 북경을 오가면서 4,0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책을 사들여, 이를 『한정록』의 증보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대한 서적의 목록에서 『弇州山人四部稿』만 보이고 『續稿』는 빠져 있다. 이 점이 잘 납득이 되지 않으나, 윤근수와 허균의 시기에서는 『續稿』의 유통 흔적이 명료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續稿』의 조선 유입시점은 17세기 초엽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申欽(1566~1628)이 「晴窗軟談」의 中篇에서 『弇州續稿』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연간에 왕세정은 당대에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로 일컬어졌으며, 스스로도 양웅, 사마천, 반고로 자처하였다. 그런데 만년에 이르러서는 소동파의 시에 주력하여 더러는 풍격이 아주 흡사한 작품도 있으니, 『엄주속고(弇州續稿)』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청창연담」 상중하 3편은 시문평류에 속하는 글로써 시간차를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후에 보충을 한 흔적도 간혹 보인다. 상편과 중편은 중국의 시인과 작품을 명대까지 기록하였고, 하편에서는 海東의 시인과 작품을 심흡 당대까지 수

19) “余嘗恨家之史籍所載甚簡略 切欲添入遺事 勒爲全書爲計久矣 僮僕未暇 甲寅乙卯兩年 因事再赴帝都 斥家貨 購得書籍幾四千餘卷” 한글 번역은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9 『성 소부부고』IV, 24면, “범례”를 참조하였다.

20) 申欽, 『象村稿』 第51卷, 「청창연담 · 중(晴窗軟談 · 中)」, “嘉靖年間 王世貞稱爲一世雄才 其自視蓋楊馬班也 而晚境主蘇詩 時有絕相類者 若見『弇州續稿』可知也”

록해 놓고 있다. 이 글에서 임주산인의 작품을 논한 바가 적지 않은데, 가령 「청창연담」의 하편에서 예시로 든 7언 배율시「史書를 뒤적이다 우연히 느낀 바가 있어 남긴 시(閱史偶有所感)」<sup>21)</sup>의 출처가 바로 『續稿』卷二十임을 볼 때, 그가 관련 내용을 다른 책에서 전재한 것이 아니라 『續稿』를 직접 열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같은 글에서 윤근수가 80세의 나이로 죽었고(1616), 백사 이항복이 무오년(1618, 광해군10) 봄에 대비(大妃)를 폐위한 일을 간한 것, 또 김현성에 대해 ‘올해 77세의 나이(약 1618년)인데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신유년(1621, 광해군13)에 80세로 죽은 일 등등을 보충한 걸로 보아,<sup>22)</sup> 최소한 「청창연담」 하편은 신흠의 만년에 작성되었고, 이 글에 인용된 왕세정의 『續稿』 또한 이 시기에 유통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문단의 독자들이 단순한 열람을 넘어 『續稿』의 작품을 산문선집에까지 이용한 사례는 『皇明茅鹿門王弇州二大家文抄』에 이르러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편자인 신최의 서문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생질 김석주(金錫胄)가 학습 편의의 목적으로 나에게 모(毛)·왕(王) 두 대가의 문장 선별을 부탁했다. 나는 녹문(鹿門)으로부터 「書」10수, 「序」10수, 「雜文」10수를; 엄원(弇園)은 『正稿』로부터 「序」20수, 「記」5수를, 『續稿』로부터 「序」10수, 「記」5수를 각각 얻었다.<sup>23)</sup>

『皇明茅鹿門王弇州二大家文抄』는 신흠의 손자 申最(1619-1658)가 외조카 金錫胄의 요청으로 명대 문인 모곤과 왕세정 두 사람의 산문작품을 선집한 것이다. 인

21) 『象村稿』第52卷, 「閱史偶有所感」, “掩卷柴門數落暉 古來俱羨聖之威 那知天地長多事 總爲英雄未息機 雙眼耐他人錢在 一身贏得帝羓歸 鮑魚不救祖龍臭 蟻蟻翻因齊霸肥 黃屋事移輸白屋 衰衣緣盡着青衣 王孫子姓時時改 寒食園陵箇箇饑 塵世隙駒俄自了 豎儒毫兔易成非江南鹿豕同遊處 喬木連雲盡百圍”

22) 「청창연담·하」, “尹根壽字子固號月汀 府院君 年八十卒”, “白沙李相國 戊午春 諫廢大妃”, “金玄成者字餘慶 號南窓 詩漢雅祖唐詩 時有極可愛者 今年七十七 不衰……辛酉卒 年八十”

23) 申最, 『春沼子集』卷3, 「鹿門弇州兩集文抄引」, “表姪金錫胄要余抄兩家之文 以便服習 余於鹿門 得書十首 序十首 雜文十首 於弇園『正稿』得序二十首 記五首; 『續稿』得序十首 記五首”

용문에서 “『續稿』得序十首, 記五”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책을 속종(재위기간: 1674-1720)初 김석주에 의해 한구자(韓構字)로 인출된 것으로 보는 견해<sup>24)</sup>와 종합해 볼 때, 『續稿』가 조선의 산문선집과 간행에 활용된 시점 또한 17세기 중반 이 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 4. 나오며

이상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선집기준과 간행연대에 관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팔재자 문장을 선집한 기준은 서정경과 황성증을 기점으로 육조文風의 작가를 책으로 뚫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팔재자의 구성원은 대체로 왕세정의 『예원치언』에 근거를 두나, 전여성은 예외에 속하는 경우로서, 편자 개인의 문학적 애호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전편에 걸쳐 다양하게 인용된 문학비평으로 보건대, 편자는 육조문학의 문채미와 진솔한 감정에 대한 문학적 취향을, 왕세정의 권위를 차용하여 드러내었다. 다만 왕세정 시문평에 대해 약간의 수정을 가함으로써 개인의 문학적 견해 표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필자는 기존의 서지적 각도가 아닌 본 텍스트의 내용에 입각하여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간행연대 관련 논의를 전개시켜 보았다. 편자가 「씨명사적」과 본문의 文評에서 인용한 「吳中往哲像贊」이 왕세정 만년 문집인 『續稿』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이 문집의 중국간행과 조선 유입시기가 『황명정가팔재자문초』의 간행연대를 추정할 만한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續稿』는 만력27년(1599) 전후에 중국에서 간행되었으므로, 이 책을 선집에서 활용한 『황명정가팔재자문초』가 16세기에 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 문단에서 『續稿』의 유통 궤적은 윤근수나 허균의 시기에는 명확하지 않으

24) 김영진, 규장각 문학해제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며, 신흠의 「晴窗軟談」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므로, 최소한 『續稿』의 조선 유입 시기는 17세기 중반 이전인 것만은 확실하다. 한편, 신최는 『續稿』을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皇明茅鹿門王弇州二大家文抄』의 선집에까지 활용하였으니, 『續稿』를 선집에 활용한 『황명정가팔재자문초』 또한 마찬가지로 편찬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17세기 중반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서지학적 접근방식과 본 텍스트의 내용으로부터의 접근방식은 물론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 하지만 『황명정가팔재자문초』가 異本이 없으므로, 이 결과를 서지학 관련 선행연구와 연계시켜 살펴보면, 『황명정가팔재자문초』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사이에 조선에서 간행된 戊申字本<sup>25)</sup>이라는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무신자가 특히 숙종조에서 영조말기까지의 인쇄물에 다양 사용된 활자라는 점 또한 이러한 해석에 더 힘을 실어준다.

다만, 『황명정가팔재자문초』에 찍힌 장서인에 의하면 이 선집본의 간행시기 하나선은 아무리 늦어도 18세기 중후반 영정조 시대로 추정된다. 장서각 소장본(K4-415)에는 성명인과 閑文印 총 2 方이 찍혀 있는데, 서로 다른 면에 있기는 하나 印文의 내용상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sup>26)</sup> 즉, 卷首葉의 우측 하단 “李漢喬”, 그리고 「씨명사적」이 끝나고 서정경을 필두로 본문이 시작되는 면의 우측 하단 “影則山河干於公侯, 水生其上而開其下. 雲章倬彼, 谷鶯栖于千仞之翔, 四德之首. 白沙後裔, 東岡外派”가 바로 그것이다. 수장자 이한교의 본관은 경주 이씨로, 자는 봉원(鳳元)이다. 부친은 이명집(李命集)이고, 형제는 이경교(李慶

25) 戊申字는 顯宗 9년 무신년(1668), 金堉의 장자인 김좌명(金佐明, 1616-1671)이 호조와 병조의 물자 및 인력을 사용하여 수어청에서 주조한 동활자로 갑인자의 네 번째 개주에 속하며, 김좌명 사후에는 교서관(校書館)으로 옮겨졌다. 숙종에서 영조 말기까지 백 여 년 동안 사용되어 그 인본의 종수가 매우 많다. 한편, 김두종 교수는 “근세조선 전기의 금속활자가 주로 임금의 칙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활자는 김좌명 자신의 의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특이한 점이라 지적하였다. 친혜봉, 2012 『한국금속활자 인쇄사』, 범우, 190~195면 참조. (김두종의 견해 또한 이 책에서 전재한 것임)

26) 규장각 소장본(奎3905) 또한 원래는 卷首葉의 우측 하단과 서정경 산문 시작부분 하단에 각각 장서인이 있었으나 모두 도삭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 있는 절취 흔적의 크기가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인장으로 예측된다.

喬)、이영교(李永喬)이다. 영조35년(1759)에 출생했고, 그의 나이 32세인 정조14년 경술년(1790) 증광시丙科에 1등으로 급제하였다.<sup>27)</sup> 특히 “白沙後裔, 東岡外派”라고 한 점에서 이 인장이 閑文印 외에 身分印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바, 이한교는 조선중기 문신 白沙 李恒福(1556-1618)의 후손인 듯하다.<sup>28)</sup> 『詩經』의 詩句 등을 빌어 이항복 후손으로서의 궁지와 자부심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투고일(2016. 4. 19), 심사일(2016. 5. 20), 계재확정일(2016. 6. 10)

- 
- 27) 정조(正祖) 7년(1783) 계묘(癸卯) 증광시(增廣試) [생원] 2등(二等) 9위, 정조(正祖) 14년(1790) 경술(庚戌)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위. 이상 자료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승정3 계묘춘 선대왕존위세실 원자정호 합2경 별시 증광 사마방목(崇禎三癸卯春先大王尊爲世室元子定號合二慶別試增廣司馬榜目)』 참조. [http://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exmId=EXM\\_SA\\_6JOc\\_1783\\_025511&category=dirSer](http://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exmId=EXM_SA_6JOc_1783_025511&category=dirSer)
- 28) 이 한문인은 도삭된 자리 위에 다시 찍힌 것으로, “이한교” 인장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인문에서 “백사”, “동강”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인장의 주인이 설령 “이한교” 본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주이씨 가문의 구성원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皇明正嘉八才子文抄』

규장각본(奎3905), 장서각본(K4-415, K4-416), 고려대본(화산 D2 A336)

『藝苑卮言』, 규장각본(奎中 2026)

(明)王世貞, 『弇州四部稿』,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1281冊. 臺灣商務印書館

(明)王世貞, 『弇州續稿』,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1284冊. 臺灣商務印書館

(明)俞 憲, 『盛明百家詩』(奎中 3568)

四庫全書存目叢書 集部 第304-308冊, 齊魯書社

(明)林世遠, 王鏊 等 纂修, 1965 『(正德)姑蘇志』, 台北: 學生書局

(明)王錫爵, 2000 『王文肅公文集』, 北京出版社, 四庫禁燬書叢刊 集部第7冊

尹根壽, 『月汀先生集』, 한국문집총간 제47집

許 篤, 1989 『惺所覆瓿藁』IV,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申 欽, 『象村稿』, 한국문집총간 제71, 72집

申 最, 『春沼子集』, 한국문집총간 속제34집

서울대학교 奎章閣 編, 1994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下冊, 서울대학교奎章閣

서울대학교 奎章閣 編, 1993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2』, 서울대학교奎章閣

천혜봉, 2012 『한국금속활자 인쇄사』, 범우

魏宏遠, 2008 『王世貞晚年文學思想研究』, 上海: 復旦大學中國古代文學研究中心博士論文

최은주, 2003 「조선후기 시문선집에 나타난 명대 문학의 수용 양상」, 『동방한문학』24

진재교, 2014 「조선조 후기 文藝 공간에서의 王世貞」, 『한국한문학연구』54

옥영정, 201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朝鮮前期 總集類 書籍과 서지학적 가치」, 『奎  
章閣』46

김정숙, 2015 「『세설신어』독자형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명대 중엽 흥치년간(弘  
治年間) 강남 오중문인(吳中文人)의 인물지」, 『東方學志』171

한국고전 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s/mainIndexIframe.jsp>

한국학 종합DB <http://db.mkstudy.com/>

中國基本古籍庫

### **Abstract**

A study on Anthology for Eight Telents' Prose in ZhengJia Ming China as published in Chosun --focusing on the standards in selected and publication year

Kim, Jeong-suk

*Anthology for Eight telents' prose in ZhengJia Ming China*皇明正嘉八才子文抄 is the collection of Ming China prose which was published in Chosun. The term ‘Eight Talents’ indicate men of letters that they all were active during Zhengde正德 and Jiajing嘉靖 period(1506-1566) of the middle Ming dynasty. The preceding research still mostly be limited to bibliographic investig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result from a limitation that this literature itself is not well-defined about who selected and when published it. For catching this problem, it is a prime task that the point of editor and publication year of this book correctly is understood, first of all, about the meaning of this literature given by the Chosun reader and coordinate in the Chosun literary world.

This paper firstly focus on this literature's basic work, namely, its standards in selected and publication year, and draw a conclusion that writers group were consisted from Xu Zhenqing徐禎卿 to Huang Xingzeng黃省曾 with Six Dynasties prose-style. this book's editor gave Wang Shizhen's王世貞 *YiYuanZhiYan*藝苑卮言 the authority of literatural criticism. About publication year, I also found this anthology employed *YanZhouXuGao*弇州續稿, and take a conclusion that it was published at the earliest after the middle of the 17C.

**Key words :** Anthology for Eight telents' prose in ZhengJia Ming China, standards in selected, publication year, WangShiZhen, YiYuanZhiYan, YanZhouXuGao, 17th century